

전시리뷰

## 《겸재 정선》

2025년 4월 2일 ~ 6월 29일

호암미술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562번길 38

박정애\*

30여년 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 화가나 조각가의 이름이 붙은 미술관이 많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 곁에 ‘한국미술사에서 미술관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작가는 누구일까?’ 하는 객쩍은 생각도 해봤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작가의 이름을 앞세운 미술공간이 적잖이 생겼다. 謙齋 鄭澈(1676~1759)도 그중 한 사람이다.

정선은 18세기 조선 화단에서 이룩한 도전과 성취의 한복판에 자리한다. 그는 한미한 사대부가문 출신으로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벼슬살이를 했지만, 무엇보다 화가로서 남긴 족적이 뚜렷한 인물이다. 山水를 비롯해 故事人物·翎毛·花卉·草蟲 등을 두루 소화했으며, 특히 眞景山水가 화단의 주류 장르로 안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정선이 일으킨 반향은 2009년 ‘겸재정선미술관’이 개관한 점이나 단독 논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화가라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정선의 주요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기는 쉽지 않다. 근래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특별전 《겸재 정선》은 오랜만에 정선 회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장마당이 되기에 충분했다.

전시는 2025년 삼성문화재단 창립 60주년, 2026년 정선 탄생 350주년을 기념해 호암미술관이 작심하고 기획한 이벤트였다. 호암미술관과 간송미술문화재단, 국립중앙박물관 등 18개 기관과 개인 소장처가 참여해 총 165점(국보 2점, 보물 57점 포함)을 선보인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였다. 진경산수는 물론이고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여 정선 회화의 폭과 깊이를 훑어볼

---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호암미술관 제공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사하였다.

전체 2부로 구성된 전시의 제1부 ‘진경을 거닐다’에는 금강산과 관동, 한양 일대 명승지를 재현한 진경산수화의 향연이 펼쳐졌다. 초입에 걸린 〈仁王霽色圖〉와 〈金剛全圖〉, 〈楓嶽內山摠覽〉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화폭의 크기와 개성적 필묵법으로 인해 관람객의 발길을 오래 붙들었다. 이어서 1711년에 제작한 《辛卯年楓嶽圖帖》으로부터 《關東名勝帖》, 《海嶽傳神帖》에 이르는 금강산과 관동지역 진경산수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京郊名勝帖》과의 조우, 《壯洞八景帖》 2점과 《漣江壬戌帖》 2점을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제2부 ‘문인화가의 이상’은 관념산수와 진경산수, 화조영모 등에 구현한 정선의 문인의식과 집안에 대한 자부심에 초점이 맞춰졌다. 〈廬山草堂〉과 〈聚星圖〉, 《七先生詩畫帖》, 《退尤二先生眞蹟帖》 등을 통해 정선과 당대 지식인 사회를 관통한 이념적 지향과 내면화 양태를 엿볼 수 있었다. 문자기록과 다른 시각매체 고유의 즉물성을 극대화한 정선의 예술적 감각과 풍격이 도드라지는 작품들이었다.

개막 이후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하루 평균 2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화제를 모은 전시로 손색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지적에 살며 정선을 지켜본 觀我齋 趙榮祐(1686~1761)이 「謙齋哀辭」에서 “... 살아서 일세에 이미 이름이 났고 죽어서 백대 이후까지 내려갈 테니 가히 죽어

도 썩지 않는 것이라 이를 수 있네(生既名於一世 歿而垂之身後 傳之百代之久 其可謂死而  
不朽者歟)”라고 한 말이 결코 관용적 미사여구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덤으로 미술관 옆  
熙園을 누비던 공작새가 우아한 꼬리를 접고 날개를 펼친 채 하늘을 나는 진귀한 광경을 목도  
하는 호사도 누렸다.